

광주 청년들 미래 설계...‘취업멘토링 페스타’ 열린다

진로 탐색·현직자 상담·체험 어우러진 맞춤형 축제
시·고용노동청 등 13개기관 협약...일자리정보 제공

광주시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취업멘토링 페스타’가 5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광주청년 일자리통(通) 협약식, 취업 인플루언서 ‘제이콥’의 취업특강, 잡(JOB)답 토크콘서트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현직자 멘토링, 청년정책존, 1:1 상담존, 청년스토리존, 청춘플레이존, 스텝투어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광주시는 이날 광주형 청년일자리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광주청

년센터 등 13개 기관과 ‘광주청년 일자리통(通)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광주청년들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통합서비스 체계’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

취업 인플루언서 제이콥은 ‘꿈을 비즈니스처럼 설계하고 실행하는 법’을 주제로, 현실적인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노하우를 전한다.

또 ‘잡(JOB)답 토크콘서트’에서는 강

기정 광주시장이 ‘청년, 광주의 힘’을 주제로 시정 현안과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고민과 제안에 답하는 소통형 토론회가 진행된다.

부대행사인 ‘현직자 멘토링’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환경공단, 블루밍하트, 한가죽복지센터 등 4개 기관의 현직자가 참여해 전기·공기업·IT·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생생한 직무 멘토링을 들려준다.

‘청년정책존’에서는 광주청년센터, 청년노조지원사업, 청년드림은행, 광주청년

구직활동수당,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수행기관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청년 정책과 지원 사업을 안내한다.

‘1:1 상담존’에서는 재무(광주지역경제교육센터), 주거(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회), 취업(광주일자리종합센터) 전문가가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청춘플레이존’에서는 인생타로, 맞춤형 색상(퍼스널 컬러), 소원팔찌 만들기, 포켓항수 등 감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스텝투어 이벤트를 통해 참여의 즐거움을 더한다.

행사장에는 인생네트 포토존, 희망우체통, 소원트리 작성 등 참여공간도 마련돼 청년들이 즐기며 배우는 ‘진로·취업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김기숙 시 교육청년국장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성장형 축제”라며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 청년이 머물고 싶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GCC사관학교 2기, 콘텐츠 인재 106명 배출

7개월간 948시간 교육·25개 기업 연계 프로젝트 성과 공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최근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에서 열린 ‘GCC사관학교 2기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GCC사관학교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GICON이 함께 추진하는 지역 대표 청년 교육사업으로, 게임·애니메이션·웹툰·실감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2기 과정에서는 총 106명이 수료했으며, 교육생들은 7개월간 948시간의 기초·심화교육과 취업 멘토링을 이수했다. 특히 25개 기업과 협력한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3개월간 실무형 과제를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역량을 쌓았다.

수료식은 ‘빛나는 인재들의 성장’을 주

제로 열렸으며, 실감형 콘텐츠·게임·웹툰 등 다양한 작품 전시와 시연이 함께 진행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료생들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살펴보고 현장 네트워킹과 인재 발굴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1기 수료생들이 참여한 ‘GCC사관학교 토크쇼’도 함께 열려, 선배들이 후배 교육생들에게 경험과 조언을 전하며 기수 간 교류와 연대를 다지는 시간도 이어졌다.

이율리 웹툰 ‘정년’의 스토리 작가 서이레 작가가 ‘창작 소재 탐색과 서사 만들기’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는 90여명의 GCC사관학교 수료생과 지역 대학 유관학과 학생들이 참석해 창작자로서의 시야와 역량을 키웠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KT는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사장이지’를 출시한다.

전남 기계부품업 베트남·필리핀 시장 공략

도, 8개 기업 시장개척단 파견...760만 달러 수출협약

전남도는 최근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본부와 공동으로 ‘2025년 산업기계 특화 베트남·필리핀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7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전남지역 산업기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수출 준비와 제품 경쟁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산업계 분야 7개 사와 소비재 분야 1개 사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남도는 상담회 개최 한 달 전부터 현지 바이어와 최소 2회 이상 사전 매칭을 진행해 수출 가능성을 높였다.

그 결과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총 91건, 56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고, 76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베트남 하노이 상담회에서는 ㈜인송

경영능조합법인이 유기질 비료 수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디엠터-신축이음관, ㈜에스에프시-계면활성제, 신영엔지니어링-수배전반, ㈜에스티투메터리얼-이차전지 양극재 등 다양한 산업기계·소재 분야에서 활발한 상담을 진행하며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베트남은 탈중국화 흐름과 제조·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으로 산업기계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필리핀 역시 인프라·디지털·에너지 산업 수요 증가와 함께 한-필리핀 FTA 발효(2024년) 이후 한국산 산업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KT, 플랫폼 ‘사장이지’ 출시

소상공인 전용 인공지능 도인

KT는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기념해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사장이지’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장이지는 꼭 필요한 사업운영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소상공인 사업성장 풀케어 플랫폼’ 서비스다.

KT의 테이블오더 서비스인 하이오더와 기기아이즈(CCTV), KT 서빙로봇을 하나의 앱에서 관리할 수 있다. 사장이지는 모든 앱 마켓에서 다운 가능하다.

KT는 사장이지에 소상공인 전용 인공지능(AI)을 도입해 AI 에이전트, AI 이미지 제작, AI 전화, AI 매장음악, AI 로봇, 사업성장리포트 등을 제공한다.

AI이미지 제작 기능은 메뉴 이미지부터 SNS 홍보 포스터까지 보다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한다.

AI로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거나 적절한 필터를 적용해 보다 손쉬운 이미지 편집이 가능하고, 무병 효과로 사진으로 동영상 효과를 내준다.

사업성장리포트는 내 매출과 주변 매출의 매출, 주요 고객층을 비교해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알려준다. 고객과 메뉴 트렌드 분석도 제공한다. 창업을 고려 중인 예비 사장에게는 지역·업종별 창업 비용과 예상 수익까지 계산해볼 수 있다.

KT는 이와 같은 AI 서비스를 소상공인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AI 전화와 AI매장 음악 서비스를 3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AI 이미지 제작도 100회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www.global-dh.com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